

굿모닝인천

MARCH 2022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39

3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2. 3. MARCH

미지의 세계를 마주한 당신의 뒷모습을 응원합니다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1774~1840),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1818, 유채, 94.5×74.8cm, 함부르크 미술관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얼굴이 아닌 뒷모습에 보다 진솔하게 감정을 이입할 때가 있죠. 한 남자가 정상에 올라 발아래 요동치는 안개가 기암 괴석을 삼키고 멀리 산맥을 향해 달려가는 풍경을 마주하고 있네요. 지금 방랑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낀 수 있겠죠. 나아가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자연에 대한 숭고함까지도 생각하겠죠. 한편으론 이런 압도적인 풍경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비시키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도 있겠죠.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프리드리히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회화사에서 이렇게 사람의 뒷모습을, 그것도 정중앙에 배치한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림 속 남자는 작가 자신일 수도 있어요. 감상자 역시 실제로 그의 뒤에서 같은 사물을 바라보며 비슷한 감정을 갖게 하는 듯 하죠. 이 작품에서 인물은 자연의 일부가 아닌 관찰자로 처리됐죠. 작가는 자연을 우리의 내면을 응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겼어요. 그가 그린 풍경화는 우리 주위에 실재하는 대상을 이성적으로 재현했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우리의 감성을 비추고자 했죠. 그것이 비록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나약한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의 다른 작품 '바닷가의 수도사' 등도 같이 찾아보면 좋을 듯했어요. 어김없이 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이 왔네요. 만물도 새롭게 뛰어오를(Spring) 준비를 하겠죠. 상급학교 신입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죠. 앞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글 김성배 인천시립미술관팀장

3 MARCH
2022 Vol. 339



표지사진 고려산에 피어난 진달래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편집인 윤병철(소통기획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김성환·김범기·임학현·김대형
디자인·제작 하나로애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3월호, 이렇게 만들었어요

봄. 3월은 3·1절이 있고 학교 문이 새로 열리는 달입니다. <굿모닝인천> 3월호는 3·1절과 새 학기를 맞아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등지를 튼 '인천독도 체험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사·지정학적으로는 물론 생태·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대한민국 영토란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이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시민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전히 시민들로 짜여진 순수 봉사단체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월호에 첫 회 연재를 시작해 호응을 얻은 소설 '아무도 울지 않는 밤'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현 고유섭 선생과 권번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용동은 스케치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냉이, 진달래 같은 봄 향기가 풀풀 솟아나는 <굿모닝인천> 3월호와 함께 봄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04 인천 미소
희망찬 봄의 에너지 가득한
〈굿모닝인천〉 외 | 38 문화 캘린더
임석근 개인전 외 |
|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굴포천 | 40 이미지 뉴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
| 06 커버스토리
인천에서 만난
애달픈 국토의 막내, 독도 | 42 시정 뉴스
송도에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개소 외 |
| 12 스케치에 비친 인천
용동 | 46 의회 뉴스
인천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최 외 |
| 18 코로나19 시대, 빛나는 인천
②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 48 컬러링 인천
화수부두 |
| 22 시민 시장
정관우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장 | 50 인포 박스
'인천투어' 사이트 전면 개편 외 |
| 24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② 교동초등학교 | 55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⑮ 광성보 |
| 28 정책 만화
코로나 극복 인천시 지원제도 | 56 소소한 인천사
붉은 땅, 동암 외 |
| 30 옴니버스 소설
아무도 울지 않는 밤
② 부드러운 말과 밤 | 57 仁生 사진관
아암도 단상 |
| 33 인천시청 소속 스포츠단
사이클 남자팀 창단, 여자 복서 영입 | 58 인천의 아침
인천예술전당의 탄생 |
| 34 베이징 올림픽 리뷰
박장혁·김동욱 쇼트트랙 선수 | 59 포토 에세이
봄 |
| 36 문화 줌인
볼음도, 248명의 삶 전시 |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 가기 |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www.facebook.com/incheon.gov



blog.naver.com/incheontogi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twitter.com/incheon_gov



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천시 미디어'



www.instagram.com/incheon_gov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희망찬 봄의 에너지 가득한 〈굿모닝인천〉

이번 겨울은 코로나19 때문인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굿모닝인천〉을 통해 봄과 희망을 만나게 되어 기운이 납니다. 2022년 호랑이 지명을 가진 호구포, 범섬, 강화 인화리를 꼭 한번 방문해 호랑이 기운을 얻으려 합니다. 또 초록초록한 실내 정원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 김지선 동구 화도진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 종합매거진

매달 〈굿모닝인천〉을 기다리는 독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기사를 읽다 보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소래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40년 전 친구 셋과 망둥어 낚시를 하던 때가 떠오르고, 산곡동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지금은 참 많이 변했음을 실감합니다. 인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석구석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동제 부평구 세월천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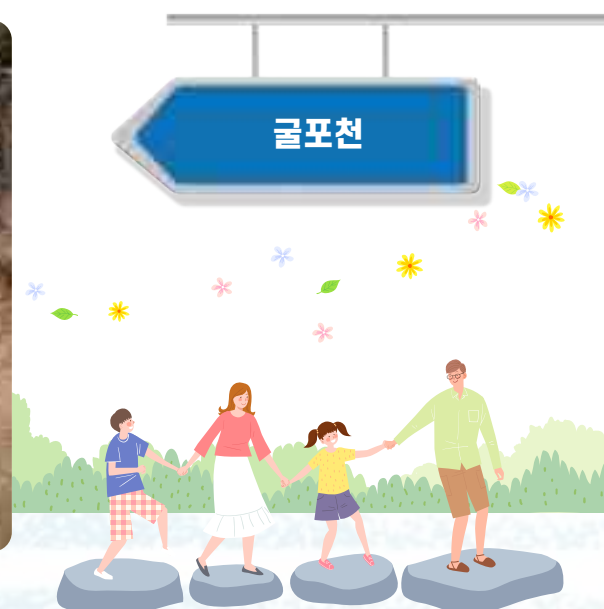
〈굿모닝인천〉 2월호 기사 중 ‘코로나19 시대, 빛나는 인천’이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인천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곳곳의 많은 노력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이지민 남동구 청능대로

제2의 고향, 인천 소식을 매달 기다립니다

인천에 갔다가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만나게 되어 정기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매월 〈굿모닝인천〉이 집에 도착할 때마다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요. 마치 인천이 고향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인천의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시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최병갑 전남 화순군



선조들이 남긴 오랜 유산 ‘굴세권’에 사는 행복

글 이수진(부평구 부평대로)

2022년이 시작되고 달력이 몇 장 넘어갔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2021년에 머무는 것 같다. 설날도 지나 이제 정말 한 살을 더 먹은 셈인데 아직 ‘2022’라는 숫자를 쓸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곤 한다. 아마도 겨울 한파에 코로나19까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리라.

이런저런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하다가 그래도 해가 바뀌었으니 조금 더 활기차게 생활하길 다짐하며 굴포천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나섰다. 사실 우리 가족에게 굴포천은 참 고마운 장소다. 운동 삼아 산책 삼아 걷기 딱 좋다. 무엇보다 굴포천이 좋은 건, 가기 전엔 가네 마네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코 박고 소파에 붙박이가 된 남편을 끌어내느라, 간식 사준다며 아이들을 끌어내느라 온 힘이 다 빠져도 굴포천 근처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가 넘친다. 집에만 있겠다고 짜증 부리던 이들이 과연 맞나 싶을 만큼 적극적이다. 누가 놀이터까지 더 먼저 뛰어거나 내기를 하고 바람 쐬러 나온 강아지와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집이 ‘굴세권’이라 정말 고맙다고 새삼 느끼곤 한다.

우리 가족처럼 ‘굴세권’에 사는 인천시민들을 위해 굴포천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언젠가 아이들이 학교 숙제로 집 주변 명소의 유래를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굴포’는 ‘흙을 파낸 개울’이라는 말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으로 뚫다는 의미인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걸쳐 하천을 파는 공사를 했다고 한다. 과거 조정 에 바치는 곡물이 바다를 통해 서울로 가는데 강화 손돌목이 배가 조난을 당하는 상습 사고 지역이라 이를 피하고자 인공 수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아주 옛날 선조들이 만든 이곳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고 있으니 더욱 소중한데 느껴진다.



서도 몽돌 해변에서 바라본 동도

春



서도 북사면 계단의 갯이갈매기떼

夏



동도 얼굴바위와 해국

秋



동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의 설경

冬

인천에서 만난 애달픈 국토의 막내, 독도

독도의 봄은 찬란하다. 한반도와 함께 460만 년을 도도하게 흘러온 질푸른 역사와 바닷새, 희귀 풀꽃의 향연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역사·지정학적으로는 물론 생태·경제적으로 귀중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힘차게 봄을 열어젖히는 중이다.

인천에서 독도를 만날 기회가 왔다. 인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1층에 ‘독도 체험관’이 문을 연 것이다. 3·1절을 맞아 본지가 독도체험관을 찾았다. 독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 가치를 힘써 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봤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대형 자유사진가



취재 영상 보기

강치·섬초롱꽃 등 독도의 속살 ‘생생’

인천독도체험관에 들어서면 커다란 눈망울에 매끈한 몸이 매력적인 독도 강치(물범)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반긴다. 파도 소리 따라 발을 옮기면, 해저터널 같이 길고 깊은 ‘독도의 세상’이 열린다. 지난 2월 17일 고만고만한 키의 두 어린이가 폴짝거리며 독도를 탐험하고 있었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인천시교육청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마스코트 강치는 물론 독도의 품에 서식하는 무수한 생명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섬초롱꽃, 해국 등 척박한 땅에 기대 사는 풀꽃들이 즐비하다.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고서와 함께 독도 연표도 시대별로 정리돼 있다. 찰각 포토존, AR(증강현실) 체험실에선 눈으로, 몸으로 독도의 역사를 즐길 수 있다.

독도의 옛 이름은 우산도(울릉도에 있었던 고대 소국 ‘우산국’에서 비롯된 이름), 석도(바위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 현존하는 역사책 중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 조선 시대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는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독도상설전시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이곳을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확장 개관했다. 이슬아(27) 인천시교육청 담당 주무관은 “새 학기부터 초·중·고 학생 대상의 해설·체험 프로그램(1시간 40분, 오전·오후 각 1회)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인천독도체험관 내부 전경

인천시교육청 인천독도체험관

-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2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 🕒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월요일·법정 공휴일 휴관)
- ☎ 전화번호 032-760-3400



독도는 작고 외로운 바위섬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품고 있는 거대한 자원의 보고다.
홍석현(가장 우측)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독도의 생태·경제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독도와 감치 모형

전국 으뜸 독도지킴이, 부평구 세일고등학교

부평구 세일고등학교는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한 ‘전국 독도지킴이 우수 학교’ 선발대회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사회과학 융합 동아리 ‘인피니티스팀’을 주축으로 지난 2019년부터 활동을 펼친 뒤 얻은 값진 결과였다.

개학을 앞두고 찾아간 교정에선 홍석현(57) 지도교사와 동아리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독도와 감치 모형을 만들고 있었다. 2,000분의 1 크기지만,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하던 동도·서도 2개 봉우리가 자태를 드러내자 모두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다.

김재황(17) 학생은 “지도로 볼 땐 작은 점으로 보여 독도가 작은 줄 알았는데, 모형으로 만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크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독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왕성하다. 동해와 독도를 각각 일본해와 다케시마(竹島)로 잘못 표기한 지도 플랫폼에 항의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제훈(16) 학생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대학생이 되어 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우영(16) 학생은 “메타버스에 ‘독도의 환경과 역사 박물관’을 구현해 전 세계인에게 독도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 로봇공학자가 꿈인 이원진(16) 학생은 “무동력 비행 카메라를 개발해 독도 주변을 지속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포부를 각각 밝혔다.

인피니티스팀은 교내 독도 전시회, 독도 꽃밭 조성, 독도 컵을 만들어 가족과 이웃에게 독도 이야기를 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수면 아래 독도의 진짜 모습, 한라산보다 높은 대자연의 보고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 ‘독도는 우리 땅’. 홍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의 관심을 깨울까’를 고민했다. 그가 고민 끝에 다다른 방법은 ‘아이들이 잘 모르는 독도의 진짜 모습, 일본 야욕의 진짜 이유를 알려주자’였다.

독도는 ‘작은 바위섬’이 아니라 한라산보다 높은 ‘2,000m의 높은 바다 산맥’으로 해수면 아래 제 모습을 감추고 있다. 동해의 수중 세계는 서쪽으로 울릉도와 안용복해산이, 동쪽으로 신흥택해산, 이사부해산이 이웃해 있다. 모두가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바다 산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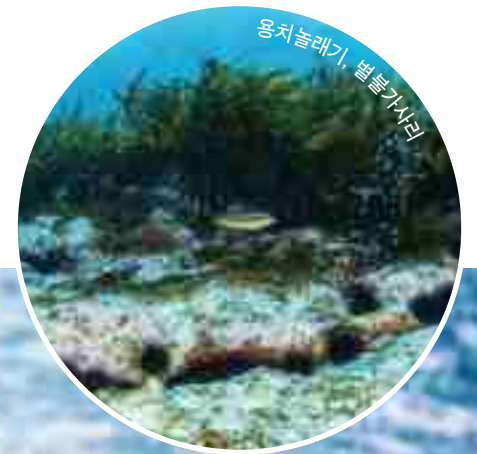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08년 독도 주변에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평가받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약 6억t이 매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제적 가치는 약 150조 원에 이른다. 이는 천연가스가 얼음에 둘러싸여 고체로 변화한 것으로 ‘불타는 얼음(fire ice)’이라고도 부른다. 독도 주변의 해양 심층수는 청정수로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일본 야욕의 진짜 이유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관광, 해양자원 그리고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독도는 작고 외로운 바위섬이 아닌, 우리의 밝은 미래를 품은 거대한 자원의 보고다.

독도는 ‘작은 바위섬’이 아니라 한라산보다 높은 ‘2,000m의 높은 해산^{海山}’으로 물살 아래 어마어마한 산맥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대한민국외교부



전국 최초 ‘울릉도~독도 수영 횡단’ (사)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2004년 8월 5일 새벽 5시 25분, 칙흑 같은 어둠을 뚫고 33명의 선수가 울릉도 앞바다에 뛰어들었다. 중학생부터 환갑을 넘긴 사람까지 수영 팬티만 입은 맨몸의 선수들이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울릉도~독도(89km) 수영 횡단을 시작했다. 다섯 척의 오징어 집어등이 어두운 하늘을 대낮같이 밝혔다.

“독도 만세!” 순서를 기다리는 선수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는 주자를 응원하며 다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오전 10시 40분까지 참가자 중 절반인 17명의 주자가 3분의 1 지점을 돌파했고, 나머지 주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28시간 만인 다음날 아침 10시께 독도에 닿았다.

동해를 힘차게 횡단한 선수들의 뒤에는 길종성(60)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회장이 있었다.

“당시 2,000명이 넘는 국민이 지원했어요. 제가 운영하던 수영장에서 반년간 연습과 테스트를 거쳐 가장 체력이 좋은 33명을 선발해 성공했지요.”

길 회장은 2007년엔 알프스 몽블랑 정상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친 것을 비롯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의 날’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 씨 등 많은 이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독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일본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잃을 게 없으니까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김경민(62)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인천광역시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독도 사진·고지도 전시회’를 열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올해도 인천시청역, 인천대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2004년 전국 최초 울릉도~독도 수영 횡단,
그 뒤에는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가 있었다.
길종성(좌) 회장과 김경민 인천광역시본부장.

독도의 봄, ‘강치’를 기다리며

독도에는 460만 년 동안 그 품에 안겨 필사적으로 대를 이어온 무수한 생명이 살아 숨 쉰다.

봄의 첫 손님은 팽이갈매기. 매해 1만여 마리가 일찌감치 동지를 틀고 사랑의 축제를 벌인다. 이들은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함께할 만큼 부부애가 각별하다. 이어 쇠가마우지, 후투티, 멧쟁이새, 유리딱새 등 철새가 섬에 찾아들어 쉬어 간다.

섬초롱꽃, 왕호장근, 섬피불나무, 초종용… 풀꽃들도 제 몫의 싱그러움으로 봄을 노래한다.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과 거센 바닷바람을 이겨낸 기특한 생명들이다.

해저를 푸른 숲으로 만든 일등 공신은 감태와 대황.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깨어나고 성장한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도 바다에는 180여 종의 어류가 살고 있다.

물개는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손님이다. 옛 친구인 강치와 많이 닮았다. 이 섬의 본디 주인은 강치였다. 1900년대 초까지 수만 마리가 서식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제는 강치를 닳치는 대로 잡아갔다.

떠났던 봄 손님이 모두 돌아왔지만 강치는 1970년대 이후 50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와줄 거라 믿는다. 올해도 독도의 봄은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다.

분 향기 훔날리던 골목,

바람만
고요, 일고

용동 권번 돌계단 골목,
2022, 종이에 수채, 56×36cm
오늘, 숨죽인 햇살만이 비추는 용
동 권번 계단. 시멘트로 뒤덮인 채
옛 돌계단 일부만 드러난 모습이
애처롭다.



취재 영상 보기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는 권번^{券番}을 품었던 동네 용동, 지우려 해도 사라지 지 않을 시간을 김재열 화백이 그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 디렉터

한 줄 글로 남은
‘화류춘몽^{花流春夢}’

‘연지와 분을 발러 다듬는 얼굴 위에/ 청춘이 바스르린 낙화 신세/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중략...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 적신 적이 몇 번이고/ 이름조차 기
생이면 마음도 그러냐.’ - 이화자의 <화류춘몽^{花流春夢}> 중에서

— 용동 ‘권번^{券番}’ 골목 깊숙이 그림자가 스며든다. 하얗게 분칠을 하고 붉은 연지를
찍어 발라 수척한 민낯을 감춘다. 비틀비틀 인력거를 타고 밤길을 나선다. ‘겁나는 세력’의
부름에 ‘빛나는 금강석’을 좇아.... 이화자(1916?~1950?)는 두 생을 살았다. ‘민요의 여왕’
그리고 ‘기생’의 삶. ‘섬시약사’, ‘어머님전상백’, ‘화류춘몽’... 1930년대 그의 목소리가 전
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 전까지 용동 권번에 적을 두고 노래했다.

권번은 일제강점기 기생의 조합이다. 이영태 인하대 교수의 저서 <권번>에 의하면, 인천
권번은 1906년 용동기가^{龍洞妓家}로 시작해, 1912년 용동기생조합소^{龍洞妓生組合所}, 1925년 용동권
번^{龍洞券番}, 1937년 인화권번^{仁和券番}으로 불렸다. 기생이라 하여 술 따르고 웃음 팔며 살지만은
않았다.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예인’이자 주체적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신여성’이
기도 했다. 1897년 인천 상봉루^{相鳳樓}의 기생들은 치마폭에 숨겨둔 돈을 독립 자금으로 기꺼
이 내놓았다. 인천 기생들은 1923년 물산장려운동에 힘을 보태고, 1925년 여름 폭우가 쏟아
아졌을 때도 나서서 이재민을 도왔다. 개항은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 풍경만 송두리째 바뀌
놓지 않았다. 뜨겁고 강하게, 이 땅의 여성들을 일깨웠다.
힘으로 밀어붙인 개항, 권번의 역사는 더 빠아팠다. 그 시간이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이 시대를 파고든다. 시 문화예술과 공모 사업을 통해 인천 악사^{樂士} 이승묵(37) 씨가 이끄는
인천 콘서트 챔버가 제작한 앨범 ‘인천 용동 권번 예인 이화자 다시 부르기’가 세상에 빛을
보았다.



힘으로 밀어붙인 개항, 권번의 역사는 더 빠아팠다.
하나 도시의 얼굴 뒤에 감춰진 뒷골목에 쌓인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역사다. 지우려 해도 감추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인천 콘서트 챔버의 이승묵(좌)

‘龍洞券番^{용동권번}, 昭和 四年 六月 修築^{소와 4년 6월 수축}
돌계단에 새겨진 용동 권번의 흔적(우)



“음악은 한 시대를 대변합니다. 이화자는 시대의 풍류를 주도하면서도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음악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냐’고 묻습니다. 억압받던 시대에 맞선, 근대 여성 예술인들에게 이 음반을 바칩니다.” ‘龍洞券番’^{용동권번}, 昭和 四年 六月 修築^{소와 4년 6월 수축} 오늘 용동 권번의 흔적은 차디찬 돌계단에 새겨진 글 한 줄이 전부다. 하나 도시의 얼굴 뒤에 감춰진 뒷골목에 쌓인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역사다. 지우려 해도 감추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인천 용동 권번
예인 이화자 다시 부르기’
앨범 듣기

용동 칼국수 거리 풍경,
2022, 펜과 먹 답제, 51×36cm
눈으로 이정표를 보지 않아도 코끝이 먼저 알아했다. 1980년대 용동 거리에 가면 칼국수 끓는 냄새가 진동했다. 오늘 이정표는 사라지고, 이 골목 터줏대감이었던 ‘초가집’도 문을 닫았다.



칼국수 끓는 냄새는 사라져가고



오늘, ‘초가집’이 있던 자리

— 뜨끈한 국수 한 그릇에도 역사는 녹아 있다. 권번 계단을 따라 내려 가면 옛 칼국수 거리가 나온다. 1970~1980년대 이 골목은 국수 끓는 냄새로 진동했다. ‘칼국수 거리’라고 쓰인 이정표는 사라진 지 오래, 단 두 집만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큰 우물 칼국시’ 텅 빈 가게엔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 맞은편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는 ‘새집 손칼국수’의 문을 살며시 연다. 주인 어르신은 낯선 이들의 방문이 마뜩잖다. 전에는 TV 방송이고 신문이고 얼굴을 비쳤지만, 나이 들고 장사도 안 되니 영 귀찮다.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자리에는 앉으라 한다. “뭘, 들을 게 있다고.”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옛 날이야기 보따리가 하나씩 풀린다.

“오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왔어.” 이순희(78) 할머니는 스물다섯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시집왔다. 시어머니가 이 골목에서 여관을 했다. 술집 동네였다. 해가 땅 밑으로 떨어지기 전부터 취기 오른 사람과 한복 입은 색시들로 북적였



용동 칼국수 거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순희 할머니. 이제,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 같은 그네들 따뜻한 한 끼를 위해 할머니가 분주히 움직인다.
작은 그의 뒷모습이,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할머니의 굵은 등 위로 창 너머 햇살이 나지막이 드리운다.

다. 몇 년 동안은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다 1975년, 서른 줄에 이 집을 짓고 덜컥 음식 장사를 시작했다. 술 마신 다음 날 속을 달래는 데 시원한 칼국수 국물만 한 게 있으랴. 연탄불에 칼국수를 끓여 내기가 무섭게 손님이 밀려들었다. 1980년대 한창때는 하루에 밀가루 한 포대를 다 썼다. 지금은 열흘이 지나도록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얼마 전엔 한집처럼 장사하던 ‘초가집’이 문을 닫았다. 국숫집이 사라진 자리엔 번듯한 카페가 들어섰다. 주인은 3개월 전 저세상으로 마지막 길을 떠났다. “남 일 같지가 않아.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해.” 큰아들은 시장상까지 받은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로, 작은아들은 연구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 그런데도 허리 굽도록 일하는 삶이 행여 자식에 누가 될까, 마음 쓰인다. 어머니는 어머니다.

“아이고, ‘하얀 할머니’ 오셨네.” “아줌마 보려고 일부러 왔어.” 최상유(92) 할머니는 이 집의 오랜 단골이다.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라고 딸, 사위가 모처럼 단골집에 모시고 왔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집 콩국을 좋아하던 할머니가 여름 한철 보이지 않아 걱정하던 터였다. “내, 맛있게 폭~ 끓여드릴게.” 고른 한낮이 지나자, 식당 빈자리가 손님으로 드문드문 채워진다. 대부분 같이 머리가 하얗게 세고 주름살 깊어 가는 노인들이다. 가족 같은 그네들 따뜻한 한 끼를 위해 할머니가 분주히 움직인다. 작은 그의 뒷모습이,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할머니의 굵은 등 위로 창 너머 햇살이 나지막이 드리운다.

용동큰우물, 2022, 종이에 수채, 51×36cm
자그마치 140여 년 시간이 고인 '용동큰우물' 가까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학자 우현 고유섭의 생가터가 있다.



원도심 골목, 갤러리의 꿈

용동 큰우물가.
물동이를 인 사람들과
빨래하는 아낙들,

그 시골 벽적인 풍경 속에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조숙한 한 아이가 서 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선생을 기리도록 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우현문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 원로 화가 홍용선의 격려는 고유섭을 향한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

— 누군가는 잊힌 원도심 골목에 5층짜리 갤러리를 연 그가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이곳은 여전히 중심지다. 1970~1980년대 호프집 ‘마음과 마음’, ‘로젠켈라’, ‘하이텔베르그’가 불 밝히던 젊음의 거리, 그 역시 생에 빛나던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예술이라면 빛바래가는 이 거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그는 믿는다. “이미 잘 가꿔진 숲보다 황량한 땅에서 나무를 키우는 일이 더 보람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빈 건물을 보는 순간, 내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우현문갤러리가 개항로와 배다리로 이어지는 문화예술의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골목골목에 스며들었다. 주변 상인들이 가끔 불쑥 찾아와 “그림 구경하고 가도 되느냐”고 물으면, 참 반갑다. 열심히 일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들 삶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면, 원도심 한복판에 갤러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 옛날 분 향기 짙게 흘러나오던 골목엔, 오늘 바람만 고요히 인다. 문 닫은 여인숙, 텅 빈 폐허엔 공허가 아무렇게나 나뒹군다. 칼국수 끓는 냄새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봄은 다시 온다. 지난 추억은 붙잡아 가슴 한편에 묻고, 오늘과는 또 다를 내일을 기다린다.

큰 우물가 ‘구수한 큰 맛’

—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에 마음까지 든든히 채우고 옛 우물가에 선다. ‘용동큰우물’엔 140여 년 긴긴 시간이 고여 있다. 조선 후기부터 물을 퍼 올리던 자연 우물로, 1883년 개항 무렵에 다시 지었다고 전해진다. 1967년에는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와지붕을 얹은 육각형 정자를 세웠다. 이때 인천 출신 서예가 동정(東庭) 박세림 선생이 쓴 ‘용동(龍洞)큰우물’ 현판을 걸었다. 예부터 큰우물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좋은 물은 좋은 술로 이어진다. 우물 주변으로 인천, 창영, 대화 등의 양조장이 들어서 있어 골목마다 술이 향기롭게 익어갔다.

큰우물 가까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학자 우현(又玄) 고유섭(1905~1944) 선생의 생가터가 있다. ‘구수한 큰 맛’,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성의 계획’으로, 그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규정했다. 그러고는 39세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길 위에 ‘우현문(又玄門)갤러리’가 있다. 김선학(58) 관장은 2년 전 이 자리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 건 우연이자 필연이라고 했다. 그림을 좇아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중국에 17년 머물면서도 평생 미술 안에서 살아온 그다. 다시 찾은 인천에서 고유섭이 남긴 자취를 따르는 일에, 어찌 가슴이 뛰지 않으랴. 오늘 고유섭 선생이 태어난 자리에 서면 옛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물동이를 이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빨래하는 아낙들, 덜컹거리는 우마차, 그 시골 벽적인 풍경 속에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조숙한 한 아이가 서 있다. “운명처럼



고유섭 선생의 생가터에 있는 기념석

우현문갤러리의 김선학 관장
그가 고유섭 선생의 자취를 따르는 건,
우연이자 필연이다.



그림 김재열

인천예총 회장,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한 인천의 원로 작가다. 인천 구석구석의 풍경과 건물에 내재한 가치를 캔버스에 담는다. 18회에 걸쳐 수채화 개인전을 열었으며, NIB남인천방송 ‘인천 여행 스케치 기행’, 인천일보 ‘풍경 드로잉’을 연재하며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현재 인천미술협회와 한국미술협회 고문, 대한민국 수채화 작가 원로회 의장을 맡고 있다.



원도심 한복판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 우현문갤러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거리로 나선 우리 이웃.
서장인 인천시 중구 신흥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좌)와
전선자 인천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처장(우). 마스크를 쓴 얼굴 위로 환한 미소가 보인다.

모여라, ‘코로나 버스터즈’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코로나 버스터즈’ 인천시 중구 자율방재단.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2월에 걸맞지 않은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중구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앞,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초록빛 방재단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둘 모여 든다. 손에는 소독약 분사기와 청소 도구, 방역 안내 포스터를 들고 있다. ‘코로나 버스터즈’를 자처한 인천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원들, 바로 우리 이웃이다.

인천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 일상의 위험 요소를 찾아 막아내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주요 임무. 10개 군·구 지역자율방재단 2,874명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나타난 후로 방재단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다.

벌써 2년이다. 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시간. 정영중(64) 씨는 동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 가게 문이 굳게 닫힌 날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거리로 나섰다. 가슴속에 쌓인 답답함은 봉사 활동으로 이겨낸다. “남을 위해 움직이는 만큼 웃고 살 수 있어요. 모두 어렵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죠.”

봉사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김혜숙(58) 씨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봉사가 주는 기쁨을 알면 누구라도 자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주변을 돌아볼수록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요. 더 많은 사람이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라서 강한, ‘우리’는 인천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나아가기 위해 잠시 주춤한 것일 뿐. 우리는 믿는다. ‘함께’라면 더 나은 내일이 열린다고. 언젠가 오늘이 의미 있는 싸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코로나19에 맞서, 서로에게 빛이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 두 번째는 재난에 소리 없이 강한 인천을 만드는 우리 이웃, 인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 저널리스트



벌써 2년이다.
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시간.
인천시 자율방재단원들의 발걸음도
더 바빠졌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방역하는,
정관우(좌) 인천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장과
안성호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시장을 채운, 36.5℃의 온기



뜨끈한 어묵 국물에 힘이 솟는다.
힘들수록 '우리'를 떠올리며 남을 돕고, 그런 그들을 고마워하는 사람들.



중구 도원동 신흥시장.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왁자지껄해야 할 전통시장에 적막이 흐른다. 그래도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이다. 현실이 조금 힘들어도 삶은 계속된다.

“오늘도 고생이 많네. 날도 추운데...” 돼지마트 박남석(78) 씨가 방역 활동 중인 방재단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는 40여 년 자원봉사로 이 동네에서 잔뼈가 굵다. 봉사 베테랑도 방재단엔 각별한 마음이 든다. “웃는 얼굴로 남을 돕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우리가 인천시민이니 인천의 앞날이 밝지 않겠어요.”

진성상회 이원매(70) 씨는 25년간 시장 한복판을 지켜왔다. 그동안 스쳐간 시간과 인연이 모두 소중하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하고 싶어요.” 장사가 예전만은 못해도 괜찮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이웃이 있어 힘이 난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잘 이겨내자’고 ‘잘살아보자’고 꼭 전하고 싶어요.”

자율방재단이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상인들이 ‘고맙다’, ‘밥은 먹었느냐’며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 시장 길목에 있는 분식집의 정옥연(60) 씨는 가는 발걸음을 기어이 붙잡는다. “춥잖아요. 따뜻한 어묵 국물 좀 드시고 가요. 괜찮아요. 어서요.” “와~ 국물 맛이 좋네요.” 방금 전엔 단골손님이 와서 3,000원어치 매상을 올려주었다. 복닥거리는 시장통에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하다. “장사가 전보다 좀 안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야죠. 욕심부리지 않고, 딱 먹고살 만큼 벌면 돼요.” 그가 때론 맵고 쓰디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다.

중구 도원동 신흥시장. 자율방재단이
길을 지날 때마다 상인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



몸을 부리는 일이 힘들어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다.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안성호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우)은 말한다.

모두 힘든 시간이지만,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힘들수록 서로를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바로 우리, 인천시민이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어느덧 일정을 마치고 자율방재단원들이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간다. 몸을 부리는 일이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설 수 있다.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안성호(64)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은 말한다.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일이에요.” 인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약은 다른 지역까지 넘나든다. 언젠가 강원도 홍천에 홍수가 났을 때는 삽을 들고 며칠 물을 퍼냈다. ‘고맙다’, ‘수고한다’는 격려만으로도 힘이 났다. 몸이 고될수록 가슴은 더 뜨거워졌다.

정관우(73) 인천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장(미추홀구 자율방재단 단장)도 이웃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가슴 뿌듯하다. 오늘도 골목골목을 누비고 이웃과 만나며 내일의 희망을 보았다. “기나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인천시민이 ‘함께’하니깐요.”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 위로 환한 미소가 번진다. 모두 힘든 시간이지만,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힘들수록 서로를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바로 우리, 인천시민이다.

“우리 동네 위험한 곳, 관심 갖고 보면 잘 보입니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 저널리스트



정 관 우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장

“동네 사람들끼리는 흔히 하는 말로 누구네 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 동네 사정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게 마련이죠.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정관우(73)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장(미추홀구 자율방재단 단장)은 재해·재난·사고로부터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인천안전지킴이’다. 자연 재난 예방이나 재해 현장 복구 등이 주요 활동이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국엔 업소 지도와 선별검사소 지원 등 방역에 힘을 보탠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창궐부터 안전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엔 재해 재난의 원인과 유형이 워낙 많습니다. 요즘엔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인재^{人災}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예방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애깁니다. 그러나 재해 재난을 관이 혼자서 대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참여,
민·관이 협업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자율방재단입니다.

”

정 회장은 “코로나19 방역만 봐도 인천시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며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참여, 민·관이 협업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자율방재단”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자율방재단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 미추홀구 단장, 2016년엔 인천광역시 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인천의 안전을 책임져왔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부터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틈나는 대로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벌인다. 코로나19 이전엔 삼척, 울산 등 다른 지역 재난 현장 복구 지원을 나가기도 했다.

충남 당진이 고향인 정 회장 마음에 ‘제2의 고향, 인천’이 자리 잡기 시작한 때는 1974년. 당시 20대 중반이던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인천 땅을 밟았다. 그렇게 철강회사, 부동산, 간판 제작 등 여러 직업

을 전전하던 그는 1978년 운전면허를 딴 뒤 화물 운송 등 주로 운수업에 종사해 왔다. 11년 전,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한 건 자율방재단 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였다. “회장을 맡다 보니 시청·구청에 들어갈 일이 많더군요. 어떤 일을 해야 개인 시간을 쓰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하다가 개인택시로 전업을 했지요.” 그는 택시를 몰 때면 늘 정장을 입는다고 했다. 방재단 일이라는 게 사실 보람이 넘쳐난다. 그렇다고 당혹스러운 때가 없었던 건 아니다.

“현장에 나가면 뭐라도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니냐는 눈초리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약간의 여비라도 나오지만 창립 초기엔 지방봉사를 나갈 때조차 자비로 움직였거든요.” 이 때문에 정 회장은 봉사를 나가는 회원들에게 “물 한 방울도 달라고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요즘 그는 동네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 소독약을 뿌려주고 방역 안내 포스터도 붙여준다.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안내도 잊지 않는다. 처음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같은 동네 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감시를 하면 어떡하냐”고 볼멘소리를 하던 동네 상인들은 그가 찾아오면 이제 쿡 하고 웃으며 되레 정 회장의 일손을 거들어준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비롯해 안전은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사소한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우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처할 때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활짝 웃었다.



정관우 회장이 자율방재단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안내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오랜 시간 바래지 않는 아이들의 푸른 희망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하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스물두 번째 등갓길을 따라 강화군 교동면으로 발길을 옮긴다. 교동대교를 지나 넓은 평야가 이어지고 나지막한 집이 웅기쭈기 모인 한가운데 인천 교동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1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른 품으로 아이들을 맞은 운동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김현주(44) 교사와 5학년 유환(11), 2학년 유다은(8) 학생을 만났다. 함께 발을 맞추고 교정 곳곳을 거닐며 오래된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글 박채림 자유기고가 | 사진 김범기 자유사진가



교동초등학교 2학년 유다은 양, 김현주 교사, 5학년 유환 군이 교정을 다정하게 걷고 있다.



교동초등학교는 1906년 설립되었으며, 1926년 대릉리로 이전해 지금에 이른다.



2006년에 세운 개교 100주년 기념비

근대 교육의 시작, 유서 깊은 교사

교동초등학교는 인천에서 근대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초등학교로 손꼽힌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 이후 교육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근대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그 바람은 이곳 교동도에도 불어왔다.

1906년 교동향교 안에 사립화개농업학교가 설립되었는데 4년제로 당시 학생 수는 50명 남짓이었다. 1911년 6년제 사립교동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가 1912년 4년제 교동국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교동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910년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고, 교동초등학교는 파란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변함없이 따뜻하게 품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 교사[※]가 협소해지자 1926년 새로 학교를 지어 현재 위치인 대릉리로 이전하기에 이른다.

“지금 학교의 모습에선 옛 흔적을 찾기 어려워요. 단층이던 목조 건물이 점점 높아졌고, 본관은 물론 신관까지 생겼으니까요.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꾀한 거죠. 그럼에도 오래도록 바뀌지 않은 건 바로 이 운동장이 아닐까 싶어요. 봄부터 겨울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김현주 교사는 유환, 유다은 남매와 손잡고 학교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다. 교동초등학교는 전교생 33명에 교직원 13명이 함께하고 있다. 도시 학교와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지만 내실은 그 어느 학교보다 단단하다. 학년당

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후수업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피아노, 바이올린, 우쿨렐레 등 다양한 악기 연주를 배울 수도 있고 발레, 방송댄스, 사물놀이 등 활동 종목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더구나 이 모든 활동이 교육청과 강화군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피란민의 추억과 그리움을 담아

“지금이야 교동대교로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천 시내까지 한참이 걸리고, 강화군에서도 자동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요. 북한과도 가까워 이곳에 오려면 반드시 두 번의 검문을 거쳐야 하고요. 이런 이유로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로 4년째 근무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걱정이란 이제 이곳에 머물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 교사는 교동초등학교에 몸담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의 학교에서 숨 가쁘게 지내다 이곳에 부임해 교육자로서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온 마음으로 아이들과 교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전 학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학습 교구와 간식을 챙겨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전달할 만큼 이곳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의 거리는 가깝다. 지금은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을 자제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매달 한 번 대강당에 모여 생일 파티도 열었다.



교동초등학교 바로 옆엔 병설유치원이 자리한다.



2019년 교동초등학교는 '스마트 학교'로 대대적인 변신을 꾀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 관계가 더 각별하기도 할 터. 더구나 교동도는 바로 위가 군사분계선으로 북한 황해도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실향민이 많이 거주했고, 이웃 간 유대감이 깊다고.

교동초등학교 58회 졸업생 고대영(58) 씨 역시 초등학교 시절을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등교할 때마다 커다란 전나무가 우리를 맞아주었죠. 그 때는 학생 수가 엄청 많았어요. 전교생이 800명쯤 되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다들 도시로 떠나면서 교동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던 학교의 모습은 그대로일 거라 생각합니다.”

놀면서 배우는 학교, 등교가 즐거운 학교

교동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지식분교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원래 교동도에는 난정초등학교, 지석초등학교 등이 있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통합되기에 이른 것이다. 2019년 난정초등학교와, 2022년 지석초등학교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학교가 통합되기 전부터 세 학교 학생들은 강화 나들길 걷기, 교동지구 두레 수학여행 등 의

형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웠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적 열세를 현명하게 극복했다.

“저는 난정초등학교에서 2학년 때 교동초등학교로 왔어요. 아무래도 친구가 많아지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학교가 엄청 좋았어요. 실내 농구장도 있고, 요리 실습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유환 군은 교동초등학교에서의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웃음 짓는다.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수업까지 학교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힘들지 않냐고 묻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거라 괜찮다고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시간은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인식되는 것이라.

교동초등학교는 2019년 신관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 전체 환경에 변화를 꾀했다. 교실 내부는 스마트 칠판으로 바뀌 터치 한 번으로 인터넷은 물론 모든 기자재까지 연결해 수업 효과를 극대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기 전부터 교동초등학교는 미리 체계적으로 시설을 갖춰놓은 셈이다.

“유치원 때부터 여기를 다녀 익숙해요. 작년에는 발레를

배웠는데요, 올해는 뭘 배울지 고민 중이에요.”

유환 군의 동생 다른 양도 학교가 재미있냐는 물음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며 오빠를 따라 환하게 웃는다. 교동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병설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어 대부분 유치원 때부터 이곳에 다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옆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웅기종기 자리해 교동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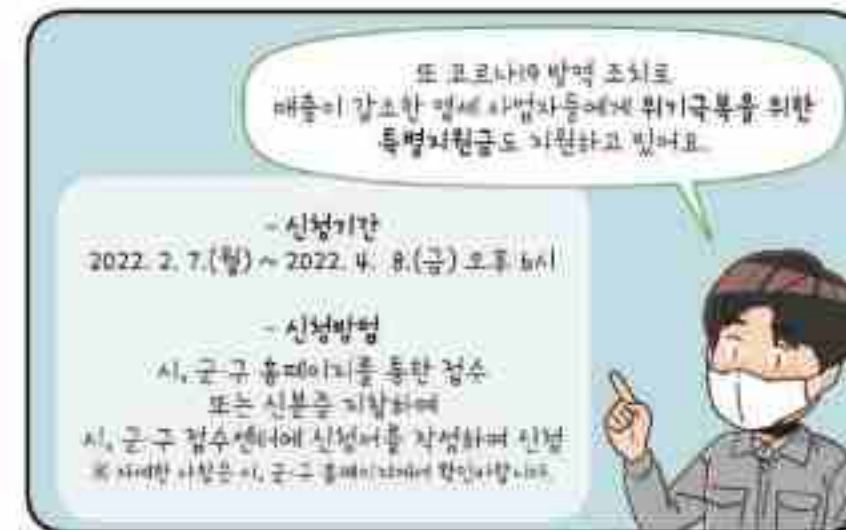
지난 100년, 앞으로 빛날 100년

교동초등학교는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운동장 한쪽에 자리한 100주년 기념비가 오랜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다져온 한 세기를 도약하는 또 한 세기로!’라는 문구가 교동초등학교의 굳은 결심을 말한다.

교동초등학교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의 푸른 꿈과 희망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자 한다. 오랜 역사는 교동초등학교의 자랑이지만 이것만으로 이곳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는 없을 터. 전인교육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음으로써 숨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곳, 교동초등학교는 그 역할을 앞으로도篤심 있게 지속할 예정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환 군, 김현주 교사, 유다은 양.



부드러운 말과 밤

글 안보윤



일러스트 송미정

지금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어. 유영은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해가 기울어 골목 끝이 검게 지워져 있었다. 시멘트 담과 그 위로 뻗은 배롱나무 가지 끝을 어둠이 덩석덩석 집어삼켰다. 유영은 좁은 골목과 길 모퉁이를 돌아 빠르게 달렸다. 사위가 어두워 여러 차례 넘어질 뻔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차고 축축한 바람이 그 늘진 마음속을 온통 휘돌고 있었다.

엄마와 말다툼한 건 오랜만의 일이었다. 엄마와 사이가 좋아서라기보다 그간 엄마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 유영은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전부 오빠 때문이었다. 오빠가 돌연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겠다고 선언한 건 3년 전이었다. 처음엔 엄마도 아연실색해 오빠를 말렸다. 취미로 스케이팅을 해왔다지만 오빠는 벌써 열다섯 살이었고, 빠르면 서너 살부터 피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늦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오빠가 전신 쥘쥘이를 입고(그런 건 대체 어디서 구했담!) 거실에서 펄쩍펄쩍 점프를 뛰기 시작하자 엄마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유영의 오빠는 두 팔을 둥글게 벌린 채 도움닫기 해 높이 솟아올랐다. 1회전, 1회전 반, 2회전에 가당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나동그라지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오빠는 일어나서 뛰고 또 뛰었다.

꿈을 정한 건 오빠였지만 그날 이후 가족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훈련 가능한 빙상장은 유영의 집에서 한 시간 반 거리였고, 엄마는 매일 오빠를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오빠가 훈련하는 동안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종일 빙상장에 머물렀다. 대회가 잡히면 심야훈련이 더해져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덕분에 유영은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할머니 댁에 며칠씩 머무는 날이 많았고 방과 후엔 공부방과 영어학원, 피아노와 논술학원을 번갈아 다녔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어쩐 일로 집에 있었다. 유영은 당장 엄마에게 달려갔다. 그때만 해도 유영은 다만 엄마가 반가웠고, 오빠가 집에 없는 게 기뻐했다.

“유영아, 만두 보러 온 거야?”

유영이 흠칫 놀라 멈춰 섰다. 어느새 사거리 편의점까지 달려 나온 모양이었다. 작은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민서가 손을 흔들었다. 상자 안에는 지난겨울부터 편의점 앞에 살게 된 길고양이 왕만두가 있었다. 이름과 딱 맞게 얼굴이 유난히 크고 넓적한 고양이였다. 유영은 민서 옆에 쪼그려 앉았다. 너무 빨리 달려서인지 다른 이유에선지 숨이 뒤엎키며 어깨가 떨렸다.

만두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다 유영은 조금 움츠러들었다. 손끝이 차고 뻗뻗해 만두가 깜짝 놀랄 것만 같았다. 머뭇거리는 낌새를 알았는지 만두가 유영의 손등에 커다란 얼굴을 맞대어왔다. 까맣고 통통한 꼬리를 흔들어 유영의 팔뚝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유영은 집을 뛰쳐나오기 전 엄마에게 쏟아부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엄만 오빠밖에 몰라. 엄만 사실 내가 싫은 거지? 내가 공부도 못하고 오빠처럼 재능도 없으니까, 나처럼 쓸모없는 애는 신경도 쓰지 싫은 거야. 그렇지? 근데 엄마만 싫은 거 아냐. 나도 내가 정말, 정말 싫어! 그러나 유영은 알고 있었다. 화가 나서 새빨개진 유영의 얼굴과 달리 엄마 얼굴은 슬프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엄마가 뻗어온 손을 유영은 세차게 밀어냈다. 어떤 의심도 없이 호의 섞인 온기를 전해오는 만두와 달리 자신의 말과 행동은 하나같이 차고 날 서 있었다. 유영이 숨을 고르는 동안 민서는 잠자코 옆을 지켜주었다. 어깨의 들쭉거림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민서가 말했다.

“근데 만두가 아픈가 봐. 좋아하는 간식을 안 먹어.”

“…… 물을 마시고 싶은 거 아닐까?”

유영이 바짝 마른 만두 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민서가 물그릇 가득 깨끗한 물을 떠 왔다. 내내 웅크려 있던 만두가 부스스 몸을 털더니 물그릇을 얼른 핥았다. 찹찹찹 물 마시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민서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유영이 너는 이런 거 참 잘 알더라. 관찰력이 좋은가 봐. 지난번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우리 강아지 다리가 아픈 거 같다고 했었잖아. 나는 개가 충충대며 걷는 게 마냥 귀여웠거든. 근데 네 말 듣고 병원에 가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절뚝이는 거라지 뭐야. 정말 깜짝 놀랐어.”

“그건 그냥 우연이야.”

“아냐, 내가 울적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네가 제일 먼저 알아채잖아. 너는 관찰력이 좋고 섬세하고 무엇보다 다정해. 유영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면 좋겠어. 아니다, 심리상담가가 돼서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멋있겠다. 동물을 좋아하니까 수의사도 어울리겠고.”

민서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다.

“유영이 넌 정말 뭐든지 될 수 있겠다, 부러워.”

유영은 그 말들이 겹겹적으면서도 기뻐다. 마음속에 납작하게 밟혀 있던 무언가가 솜사탕처럼 조금씩 부푸는

기분이었다. 저런 말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유영은 손안 가득한 온기와 마음속 가득한 다정한 말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졌다. 상처 주고 상처 입는 말이 아니라 보듬고 안아주는 말. 유영은 그런 말을 듣고만 싶어 했지 한 번도 얼마나 오빠에게 건네본 적이 없었다.

몸을 일으킨 유영이 자신이 달려 나온 골목을 돌아보았다. 캄캄했던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둥글고 흰빛이 가득했다. 가볍게 부푼 따듯한 말들, 상냥한 기운으로 가득한 봄바람. 유영은 뺨을 스치는 바람에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했다. 유영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겨우 싹을 틔우고 있었다. (*)

안보훈 | 1981년 인천 출신. 2005년 장편소설 <악어떼가 나왔다>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으며 등단. 자음과모음문학상 수상. 소설집 <비교적 안녕한 당신의 하루> <소년7의 고백>, 장편소설 <오즈의 닥터> <사소한 문제들> <우선멈춤> <모르는 책> <밤의 행방>, 중편소설 <알마의 숲>이 있다.



알차고 풍성해진 인천시청 스포츠단

올해 들어 인천시청 소속 스포츠단의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먼저 지난 1월, 1986년 사이클 여자팀 창단에 이어 36년 만에 사이클 남자팀을 창단했다. 사이클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일 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로 역사와 전통이 깊으며, 인천은 계양체육관 내 벨로드롬이나 아라뱃길 등 최적의 사이클 훈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그럼에도 사이클 남자팀이 부재했던 만큼 창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좋은 환경을 토대로 지역 내 선수 육성을 통해 사이클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 특히 인천 중·고교 선수들이 지역 내 실업팀 부재로 타 도시로 이적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자못 깊다. 인천시청 사이클 남자팀은 지난해까지 인천체육고등학교 사이클팀을 지도한 김병섭(47) 코치가 이끌며, 나중규(24), 김용준(19), 박병도(19), 조강희(19) 등 4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한편, 인천시청 복싱선수단은 2022년 1월 여자복싱 김서

희(20) 선수를 영입했다. 김서희 선수는 전국아마추어복싱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청소년 시절 체육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재학하며 여러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뒀고, 용인대학교에 복싱 특기생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인천시청 복싱선수단은 아마추어 선수 중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만 입단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다. 함께 입단한 송주향(19) 선수 역시 취미로 시작한 복싱에서 우수한 실력을 드러내 인천시청 복싱선수단에 영입된 경우다. 그는 지난해 열린 2021년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 여자고등부 -69kg급 결승에서 강수경(KM복싱)에 4-1 판정승을 거두며 우승하는 이변을 연출한 바 있다.

스포츠를 인기, 비인기의 잣대로 구분할 수는 없다. 모든 선수가 흘리는 땀방울의 크기와 가치는 같기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오늘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은빛 질주의 주역 인천 연고 스포츠토빙상단 박장혁·김동욱 선수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우뚝 서다

지난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총 13개 종목 65명이 출전해 9개의 메달을 따면서 종합 순위 14위를 기록했다. 메달 색깔이나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온 국민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에 울고 웃으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은 종목은 바로 쇼트트랙이다.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강자로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전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중 2명이 인천이 배출한 선수라는 점이다. 남자 쇼트트랙에서

는 5명만이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는데, 그중 박장혁(24) 선수와 김동욱(29) 선수가 인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스포츠토빙상단 소속이다. 스포츠토빙상단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두 종목으로 구성된 실업팀으로, 2016년 1월 창단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 출전한 김도겸(29) 선수를 배출한 바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은 500m, 1000m, 1500m, 5000m 계주 경기가 열렸으며, 여자 선수들과 함께하는 혼성 계주도 신설되었다. 박장혁 선수는 1000m, 1500m, 5000m 계주, 혼성 계주에 출전하고, 김동욱 선수는 5000m 계주에 출전했다. 두 선수는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은 2월 16일 열린 5000m 계주 결승에서 6분 41초 679의 기록으로 6분 41초 257을 기록한 캐나다 국가대표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다.

박장혁 선수는 부상 투혼을 발휘해 메달의 주역으로 우뚝서 더욱 주목받았다. 그는 2월 7일 열린 1000m 준준결승 경기 중 결승선까지 세 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인코스를 무리하게 파고든 이탈리아 선수와 부딪혀 넘어진 후 뒤따르던 중국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왼손을 다쳐 열린 바늘이나 꿰매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날 경기는 치료 때문에 기권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2월 9일 열린 1500m 경기에 당당히 출전해 7위를 차지했다.

김동욱 선수는 5000m 계주 준결승 경기에 세 번째 주자로 출전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헝가리, 네덜란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선수들과 경쟁하는 어려운 경기에서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경기가 끝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완벽한 인터뷰는 결승 끝나고 하겠다”며 끝까지 전의를 불태웠다.



2021·2022시즌 쇼트트랙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한 스포츠토빙상단 박장혁 선수(맨 오른쪽), 김동욱 선수(왼쪽에서 두 번째)



박장혁(가운데) 선수는 1000m, 1500m, 5000m 계주, 혼성 계주에 출전했으며 김동욱(왼쪽에서 두 번째) 선수는 5000m 계주에 출전했다. 여기서 우리 선수들은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박장혁

대기만성 노력왕 김동욱

박장혁 선수는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2021년 스포츠토빙상단에 입단했다. 그는 입단 첫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하며 첫 국가대표 발탁과 동시에 올림픽 출전권까지 획득하는 기쁨을 누렸다. 또 2021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주 종목인 15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좋은 기량을 발휘했다. 그는 힘든 상황에도 항상 긍정적 태도로 임할 뿐 아니라 순발력, 파워, 경기 운영 능력이 출중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유망주로 꼽힌다.

김동욱 선수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스포츠토빙상단 창단부터 함께했다. 꾸준히 성장해 2021년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 남자 쇼트트랙 1000m 2위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5위를 기록하며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그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다수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올림픽과는 좀체 인연이 닿지 않던 차에 이번엔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되었다. 자타공인 노력파인 김동욱 선수는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아름다운 도전을 이룬 박장혁·김동욱 선수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이후에도 그들의 쾌속 질주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건간망 조업

‘젓새우’ 넘쳐나던 그 섬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볼음도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4호)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엔 여러 개의 형제 섬들이 있다. 석모도를 지나 서쪽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4개의 섬들 가운데 하나인 볼음도^{豊音島}는 그중 하나다. 볼음도는 새우, 꽃게, 상합이 넘쳐나던 황금 어장이었다. 젓새우만 해도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 섬 여기저기서 새우를 말리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를 ‘깎판’이라 표현하곤 했다. 한국전쟁 전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댔던 이유도 어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후 민통선과 어로저지선이 그어지면서 인구는 4분의 1로 줄었고, 더 이상 바다를 의지할 수 없게 된 어부들은 하릴없이 농부로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볼음저수지’는 한국전쟁 이후 달라진 볼음도 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렇게 70여 년이 흐른 지금, 가을걷이 때면 볼음도 선착장엔 1,000kg 단위로 포장한 ‘공공비축미’를 싣고 배에 오르는 트럭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준우(43) 서도면 부면장은

“서도면에서는 주로 공공비축미를 생산한다”며 “쌀, 고구마, 땅콩 재배 등 농업과 함께 소라, 주꾸미, 상합을 잡는 맨손어업이 서도면 주민들의 생업”이라고 말했다. 볼음도엔 800살 먹은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4호)가 풍채를 자랑한다. 높이 24.5m, 둘레 9.8m에 이르는 이 노거수는 고려 중엽 황해남도 연안군 호남리에 있던 나무가 홍수로 떠내려 온 것이라고 전한다. 북한엔 볼음도 은행나무의 짝이 살고 있는데 북한천연기념물 제165호인 은행나무가 바로 볼음도 은행나무의 배필이다. 시원한 눈 맛을 주는 영뜰해변, 조개골해수욕장 등 볼음도는 여름철 피서지로도 손색이 없다. 볼음도엔 임경업 장군의 사당이 있는데, 이는 임 장군이 볼음도란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임 장군은 16세기 명나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섬에 머물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보고 반해 볼음도라 지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고려사>엔 파음도^{巴音島}, 보음도^{豊音島}라 부르다 볼음도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볼음도를 품은 강화군 서도면은 유인도 4개와 무인도 9개가 있으며, 볼음도리는 말도리와 함께 민통선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이 오는 3월 31일까지 인천시청역 지하 3층 ‘열린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볼음도^{豊音島}, 248명의 삶’ 전시는 현재 볼음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기획전이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다’, ‘땅을 일구다’, ‘볼음도 기억하다’ 등 전시는 3부로 구성됐다. 볼음도 주민들의 생생한 삶을 들여다보며 볼음도의 광산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동현(64) 인천시립박물관장은 “한때 새우잡이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농사를 일구며 살아가는 볼음도의 속살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라며 “이번 기획전을 시작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인천지역 섬 문화와 역사를 살피고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청역 지하 3층 1번, 9번 출구 앞 열린박물관에서 진행하니 전철로 오갈 때 가볍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32-440-6735, 사진 제공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모내기 하는 주민들

3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임석근 개인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3월 4일~9일 ☎ 010-2110-3293	제22회 미추홀 한글서예협회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3월 4일~9일 ☎ 010-5415-1098	제22회 대한민국제물포서화대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미추홀실 3월 18일~23일 ☎ 010-8345-1315
홍과 사람들 정기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3월 4일~9일 ☎ 010-3163-8635	이순훈 개인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3월 11일~16일 ☎ 010-7522-8781	미추홀구 미술협회 30주년 회원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소전시실 3월 18일~23일 ☎ 010-4306-1385
한경화 개인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3월 4일~9일 ☎ 010-9995-2405	제12회 아라회전 '아름다운 열정'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3월 11일~16일 ☎ 010-6344_5064	2022년 인천아트시즌 '예술플리마켓한마당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중앙전시실, 소전시실 3월 25일~30일 ☎ 010-5007-4224
	다시, 봄 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3월 11일~16일 ☎ 010-8915-4735	제12회 청로조형예술협회국제교류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3월 25일~30일 ☎ 010-5549-5242

이달의 공연·박람회

02 수 김소영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3월 2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05 토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메타포닉>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5일 오후 7시 3월 6일 오후 4시 R석 13만 2,000원, S석 11만 1,000원, A석 8만 8,000원 ☎ 1566-6551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2>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5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월 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 석 4만 4,000원 ☎ 02-555-0822
--	--	---

06 일

VIVA HANDEL


아트센터 인천
3월 6일 오후 3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 010-7313-8925



08 화

YYC부평 문학원
유스콰이어 창단 10주년 콘서트 <Dream 4-Um> (제5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8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10-4765-8783



09 수

Die Farbe (The Color) - 라미띠에 트리오
엘림아트센터

3월 9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12 토


작곡가 시리즈 <프로코피예프> I

아트센터 인천
3월 12일 오후 5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 032-453-7700




클래식 시리즈 Ⅱ
로맨틱 가곡 콘서트 <꽃이 피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2일 오후 5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0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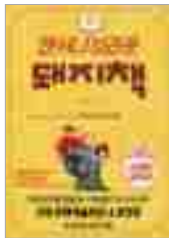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8일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000원
☎ 032-420-2781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12일~13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 석 3만 원
☎ 031-633-4864



2022 김창옥 토크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3일
오후 2시·6시
R석 7만 7,000원,
S석 6만 6,000원
☎ 1566-6551



16 수

봄, 그리고 시작

엘림아트센터
3월 16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022 커피 콘서트 I
옴니버스 인형극 <음마갱쟁 인형극장>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16일 오후 2시
전 석 1만 2,000원
☎ 1588-2341



18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0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합창>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8일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000원
☎ 032-420-2781



19 토

‘Shall We Dance?’ 4대 피아노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19일 오후 6시
전 석 2만 원
☎ 032-434-7333



20 일

지유경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3월 20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4 목

상떼자유 합창단 ‘요한수난곡’

아트센터 인천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070-4110-8290



26 토

신데렐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26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월 27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 석 3만 원(예매 시
할인 1만 8,000원)
☎ 02-959-2830



29 화

제29회 새얼 국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29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10-6268-1498

송문희, 원성원
<Joint Recital(20세기 음악)>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29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 070-7677-4992

○ IMAGE NEWS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01

달라진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방식



걱정은 줄이고 회복력은 높이고
2022년 2월 7일부터 적용 시작

02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직접 작성



확진되었다면?

- 모바일로 수신된 URL 클릭
-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추정 감염 경로, 접촉 정보, 재택 치료 입력

03

재택치료는 이렇게!



병·의원 방문이나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동거가족의 2시간 이내
필수 외출은 허용

04

재택치료 중 궁금하다면?



재택치료 중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상담 내용:
기초 의료와 의약품 처방

센터 현황: 10개 군·구 10개소

중구·미추홀구·옹진군 032-580-6110(인천의료원)
동구 1800-7070(백병원)
미추홀구 032-363-9806(보훈병원)
미추홀구 032-890-6970(현대유비스병원)
미추홀구·서구 032-590-0179(검단탑병원)
연수구 032-899-9011(나사렛국제병원)
남동구·서구 032-585-7846(나은병원)
부평구 1899-9555(부평세림병원)
계양구 032-550-9681(한림병원)
강화군 032-290-0584(BS병원)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 ▶ 우리 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취약 지역 세 곳을 특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 ▶ 영종도 해찬나래지하차도가 개통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쾌적해졌습니다. 하늘대로와 영종대로를 연결하는 길이 480m, 폭 9m 규모의 임시 도로를 통해 영종하늘도시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 우리 시는 2025년까지 관내 수소충전소를 2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2년 서구 오류동과 연희동·중구 신흥동·남동구 수산동에 4개소가 새로 들어섭니다.
- ▶ 인천성모병원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24시간 정신 응급환자를 치료하며 정신 응급 상황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 송암미술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 스마트 미술관으로 새롭게 변모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송도에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개소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지난 1월 20일 송도국제도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센터를 중심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방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월~이듬해 3월)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펼친다. 이 기간에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자율 개선 참여 유도 및 사업장 감시가 강화된다.

공항·항만 미세먼지 감축 한마음

공항과 항만이 입지한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시행한다. 지난해 항만과 공항 출입도로 6개소에 노후 차량 감시용 운행 제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공항과 항만의 친환경 차량 도입, 장비 확충, 국내 1호 친환경 연료(LNG) 선박 ‘송도호’ 운항 개시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등 생활환경 챙기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 사업, 수소차와 전기 택시 보급, 도로 청소 등을 통해 도로 재비산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및 학교·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시민 생활도 틈새 없이 챙긴다. 최근 서곶근린공원에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 지역 세 곳 특별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미세먼지 취약 지역 세 곳(중구, 동구, 계양구)에는 각종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정보 제공(미세먼지 신호등 등), 미세먼지 회피 저감 시설(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식물 정원 등) 등을 설치하고, 매일 도로 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쓴다.

미세먼지 매년 감소, 수도권에서 ‘가장 맑음’

이 같은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우리 시 미세먼지 수치(연평균 농도)는 2015년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다.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 이래 최저치인 19 $\mu\text{g}/\text{m}^3$ 를, 지난해에는 20 $\mu\text{g}/\text{m}^3$ 를 기록하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낮게 측정됐다.

구분	환경 기준	인천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PM2.5 ($\mu\text{g}/\text{m}^3$)	15	29	26	25	22	23	19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IFEZ,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착착’



송도국제도시를 해양친수도시로 거듭나게 할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27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 중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1-1단계는 오는 5월 준공된다. 남측 연결수로 곳곳에 친수 시설과 경관특화보도교, 연결수로 양측의 은하수광장·달빛광장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2단계는 하반기 공사 발주를 목표로 6·8호수-북측 연결수로-북측수로 구간의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 6·8공구, 11공구 일원에 총길이 16.19km, 폭 40~500m 규모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마리나,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유치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생태도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문의 IFEZ 032-453-7542

해찬나래지하차도 개통, 영종 교통체증 해소

해찬나래지하차도가 2월 3일 개통되며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11월 준공한 영종하늘도시 해찬나래지하차도와 이를 연결하는 하늘대로는 개설된 후 8년 동안 시점 부근(제3연륙교-해찬나래지하차도, 길이 약 2km)이 개통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 끝에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1공구 시점 부근에 하늘대로와 영종대로를 연결하는 길이 480m, 폭 9m 규모의 임시 도로를 착공, 이번에 완공함으로써 영종하늘도시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문의 IFEZ 032-453-7572

수소충전소 2025년까지 20개소 설치

우리 시는 2025년까지 관내 수소충전소를 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형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H인천수소충전소(남동구 논현동), 인천국제공항공사 T1·T2 인천그린수소충전소(중구 운서동), 인천그린수소충전소(중구 신흥동), 태양수소충전소(서구 가좌동)가 있다. 2022년에는 서구 오류동과 연희동, 중구 신흥동, 남동구 수산동 등에 4개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화물차 등의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인천성모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선정

인천성모병원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공모’(보건복지부 주관)에 선정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동시에 제공해 신속하게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내·외과적 진료와 정신과적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24시간 정신 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신 응급상황의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정신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의 핵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우리 시는 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기존 응급의료센터 내에 정신 응급환자 전용 병상 2개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5명을 추가 채용해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032-440-1584

시 전역에 CCTV 535대 추가 설치

우리 시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해 ‘안전한 인천’ 구현에 나섰다. 우선 시 전역에 500대의 방범용 CCTV를, 계양구와 강화·옹진군에 35대의 재난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 또 노후·위험 시설에 IoT 센서를 부착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더불어 우수 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한다. 그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등 맞춤형 교육과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대처 능력과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시 안전정책과 032-440-5732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우리 시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고 충전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으로 바뀐다. 또 단속 범위 확대로 완속 충전 주차 구역과 아파트도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 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해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 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9

달빛공원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공사 준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을 위해 개방했다. 리틀야구장은 인조잔디 4,269㎡에 충격 방지 펜스 118m, 덕아웃 두 곳 등을 설치했고 주변 환경도 함께 개선했다. 2016년 조성된 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야구단이 월평균 34회 이상 이용하는 곳으로, 흙 포장에 불편하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했다.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시 환경복지과 032-453-7913

VR·AR 역사 체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신설



우리 시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해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이 생긴다. 송암미술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맞춤형 스마트 북 플랫폼 및 모바일과 태블릿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영문 버전의 가상현실 전시 공간을 구축한다. 강화자연사박물관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 전시 안내 애플리케이션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주요 전시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다. 강화역사박물관은 첨단 미디어 기술로 ‘강화 행렬도’ 이미지를 활용한 체험형 공간을 구축한다. ‘강화 행렬도’는 1849년 강화로 조선 시대 25대 왕인 철종의 재위를 모시러 가는 행렬을 그린 그림으로 현재 북한의 조선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문의 시 문화유산과 032-832-9411

환경특별시 인천, 2050 탄소중립 선도

우리 시는 오는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앞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의무감축률(34%) 달성,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인천기후환경포럼 개최 등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시는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이행과 관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를 달성, 10년 연속 달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지원(2개소)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지원(6개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구립어린이집 12개소)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했다.

문의 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2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2경인선 확장 추진

1월 28일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2경인선 확장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현재 총 7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지나 남청라IC까지 연장 19.3km, 폭 4차로를 지하도로(전차중 터널)로 건설하게 되며, 남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7km 구간을 17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또 제2경인선 확장 사업은 문학IC에서 석수IC까지 연장 20.1km의 제2경인고속도로 폭을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이번에 2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영동선 확장(소래IC 건설), 남동IC 개선,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5개 사업까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7개로 늘어나게 됐다.

문의 시 도로과 032-440-3773

제물포 역세권에 2027년 아파트 3,412호 공급



우리 시가 제물포역 역세권에 2027년 입주를 목표로 3,412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제물포역 북측 일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9만 9,261㎡에 달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9월 21일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마련된 제도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다.

향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상업시설 구상,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문의 시 재생정책과 032-440-4469

덕적·자월에 축구장 42개 크기 인공어초 설치



우리 시는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옹진군 덕적·자월 해역에 축구장 42개 크기 30ha의 인공어초를 조성한다.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으로 만든 인공 구조물을 바닷속에 투하해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고기 아파트를 말한다. 이 구조물에 해조류가 부착해 번식하면 조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 어류들이 숨어 살거나 산란장으로 이용하게 된다.

문의 시 수산과 032-440-4873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본격 시행

우리 시는 올해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관내 유수율 관리 지역, 난검침 지역, 원거리 지역 등 6만 3,000전에 대해 1차적으로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강화 및 북부 지역 등에 4만 9,000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43만 수도전 중 26%에 해당하는 11만 3,000전에 대해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을 실시하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체 수도전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이 시행되면 시간대별 수도물 사용량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신속한 누수 탐지, 유수율 분석은 물론 독거노인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수도물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격 수도 검침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미터 교체와 통신단말기 설치 작업을 위해 관련 업체가 최소 두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인천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문의 시 경영관리부 032-720-3171

○ COUNCIL NEWS ○

올해 첫 임시회 개최, 33개 안건 심사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16일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주요 정책을 보고하는 시정 보고와 교육·학예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형 건설 공사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명회도 열렸다. 또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공간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3개 안건 심사도 진행했다.

한편,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과 시정 질문 등이 이뤄진다.

고교 졸업생 9명에 사랑나눔 장학금 전달



인천시의회가 지난 2월 4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실하게 성장한 9명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에게 사랑나눔 장

학금 6,39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사랑나눔 장학생의 졸업과 사회 첫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우리 사회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2008년부터 14년 동안 전체 시의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5만 원씩 모금하는 ‘사랑나눔 장학금’을 조성했고, 2013년 제1기 장학생 16명과 2019년 제2기 장학생 18명 등에게 사랑나눔 장학금을 지급해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격려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는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이번 제3기 장학생까지 총 43명의 학생에게 2억 7,000만 원을 전달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임용 단행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적인 첫 번째 승진 임용을 단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 진행된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첫 승진 인사를 의결하고, 2월 7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들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임용 사항은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의 4급 승진 임용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일반임기제 6급 신규 임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독자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심층적 논의를 거쳐 의결·임용을 추진한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독자적인 임용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가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화로 보는 컬러링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

최근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영양 및 식품안전교육 제도를 마련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를 채색해 주세요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인천앓의회> 지면에 소개하고,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기간: 2022년 3월 20일까지

보내는 방법

- ①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미디어홍보팀 (우편번호: 21553)
- ② 이메일: icouncil103@naver.com (문의: 032-440-6135)

인천광역시의회 SNS 안내

언제 어디서든 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SNS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인 'SNS'를 운영합니다. 의정활동, 의회뉴스 등 다양한 정보와 특별한 이벤트까지 '생생한 인천시의회 소식'을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앓의회> 보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032-440-6135(의회사무처)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이달의 드로잉 화수부두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침포를 적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고진오 작가



인천 곳곳의 사라져가는 풍경을 오랜 시간 화폭에 담아왔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파리, 런던, 서울, 인천, 동해, 단양, 여주 등 국내외 곳곳에서 21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 ‘홍익대학교 회화16인’ 전, ‘러시아 국립레핀미술아카데미’ 전 등 초대전과 그룹전에 350여 회 참가했다. 현재 인천미술협회 서양화분과위원장, 인천대학교 조형연구소 연구원, 갤러리 체나폴로 큐레이터, 인천환경미술협회 자문위원,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회원, 인천시 문화예술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고진오 작가의 제색 가이드

1970년대 화수부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였다. 수도권에서 으뜸가는 새우젓 전문 시장이자 어항으로 많은 이의 발길이 이어졌다. 당시 긴 갯골을 따라 매일 100여 척의 배가 몰려들었고, 물이 빠지면 배를 수리하는 일꾼들의 손길이 덩달아 바빠졌다. 만선의 꿈을 싣고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게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다. 고치고 회복하는 일은 자연의 섭리일 터. 지금은 쇠락한 화수부두에 가면 그때 그 시절 생동감이 떠오른다. 오래된 부두가 섬 끝에 다시 왕성하게 피어나길 바라본다.

▷ 2022년 2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에은 연수구 랜드마크로



김유정 중구 하늘달빛로



이다미 남동구 포구로



이지호 서구 청마로



차현숙 부평구 수변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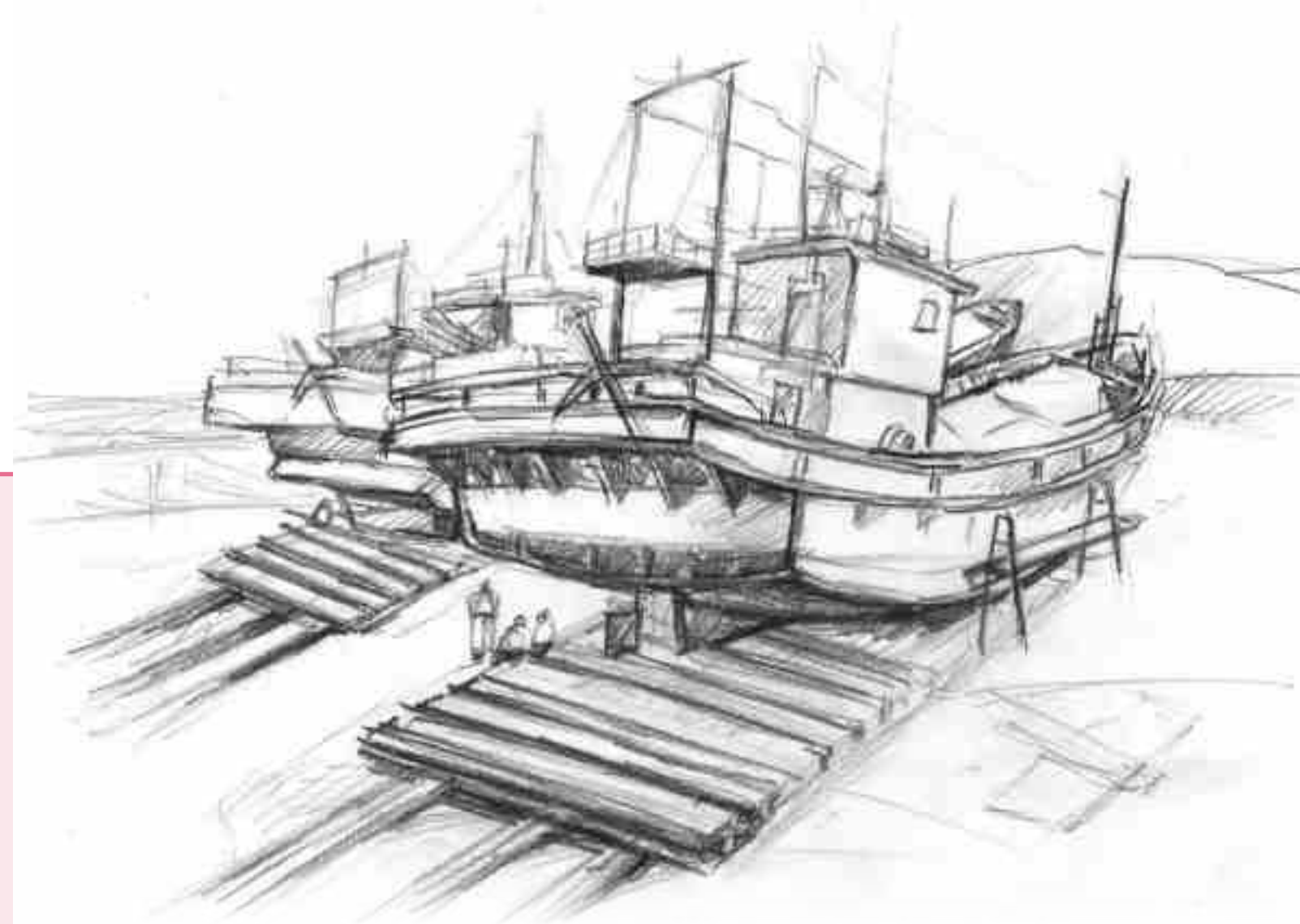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2022@naver.com

기간 : 2022년 3월 22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인천투어’ 사이트 전면 개편

우리 시의 대표 관광 포털 ‘인천투어(itour.incheon.go.kr)’
사이트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개편 내용
- 추천 여행 30선, 테마별 여행, VR 투어 등 다양한 여행 콘텐츠 수록
 - 관광지, 자연, 레포츠, 쇼핑, 음식, 숙박, 축제 등 무장애 관광을 포함한 최신 정보 제공
 - 나이, 동반자, 여행 기간·목적 등의 설정을 통한 나만의 인천 여행 제공
- 문의: ㉠ 시 관광진흥과 032-440-4052



02 코로나19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3 송학동 역사산책길,
메타버스로 만나보세요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 새로운 송학동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콘텐츠
- 인천시민애(愛)집, 구(舊)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1가 골목길 등 VR 투어
- 이용 방법
- 제물포구락부 홈페이지(jemulpoclub.com)
 -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pf.kakao.com/_GKrxddb)
- 문의: ㉠ 시 문화유산과 032-440-4484

04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을 찾습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찾습니다.



- 사업 목적: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경영 혁신을 실천하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 경영체 육성
- 사업 내용
- 2022년 강소농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본 교육 이후에는 심화 교육, 후속 교육, 역량 강화 교육 과정도 참여해야 함
 -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경영 개선, 경영 진단, 강소농대전 등의 교육과 활동 기회 제공
-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이메일(seyeon95@korea.kr) 혹은
직접 방문 제출
- 문의: ㉠ 032-427-5959

05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인천농업대학에서
인천 농업을 선도할 미래 농업
인재를 찾습니다.

- 신청 마감: 3월 11일까지
- 신청 방법: 입학 원서와
증빙 서류를 인터넷 혹은 직접
방문 제출(인천시 농업기술센터
(www.incheon.go.kr/agro))
- 모집 인원: 친환경농업학과 35명,
신소득과수학과 35명
- 선발 기준: 영농 종사, 교육 이수 실적, 영농 기간 등을
심사해 선발
- 교육 기간: 3월 29일~9월 22일 주 1회, 100시간
- 문의: ㉠ 시 인재육성팀 032-440-6911~2



06 인천형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하세요

생계 곤란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 기준에는
부적합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을 보다 두텁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 인천형 긴급복지: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당초 85% 이하)
-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당초 1억 8,8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문의: ㉠ 복지정책과 032-440-2932



07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
- 접수 전일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 구매자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문의: ①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08 연수문화원 행사에 참가하세요

연수문화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알핀로제 어린이 요들단 단원 모집]

모집 기간: 2월 21일부터(상시 모집)
교육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5~7시
교육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교육 장소: 연수문화원
수강료: 월 8만 원
활동 내용: 요들 합창 및 악기 교육 및 공연
(요들, 아코디언, 기타, 카우벨, 더블베이스)
접수 방법: 유선 문의 요망
문의: ① 032-821-6229

[전통성년식 참가자 모집]

행사 일시: 5월 14일 오후 5시
행사 장소: 원인재(인천문화재자료 제5호)
대상: 올해 성년자(2003년생) 남녀 각 4명(총 8명)
참가비: 무료
모집 기간: 3월 7일부터(선착순 마감)
접수 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① 032-821-6229

[전통혼례식 참가자 모집]

행사 일시 및 장소: 11월 5일 오전 11시, 원인재
대상: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부,
지역 소외계층 등 연수구민 3쌍
내용: 전통혼례식 진행, 축하 공연, 웨딩 사진 및 앨범 증정
참가비: 무료
모집 기간: 3월 7일부터(선착순 마감)
접수 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① 032-821-6229

09 평생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22년 제2기 사회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3월 14일~30일
교육 기간: 4월 4일~6월 18일, 11주 과정
교육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시 거주자
(전체 20% 남성 수강 가능, 일부 강좌는 제외됨)
수강료: 3만 6,000원~6만 원(교재비·재료비 별도)
신청 방법: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www.incheon.go.kr/wiw)
교육 과목: 8개 분야(자격증 취득교육, 취업·창업교육,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문화아카데미, 웰빙건강교육,
주말교육, 특강) 73개 강좌
문의: ① 032-458-7360

10 평생학습관 문화예술 행사를 만나보세요

우리 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인천 미술계의 추억]

이규명 수집가 컬렉션 전시
일시: 3월 23일~31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나무(2층)
문의: ① 032-899-1516

[유토피아 지금, 여기 이곳에]

김태란 서양화 전시
일시: 3월 23일~31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다솜(2층)
문의: ① 032-899-1516

[소프라노 구은희와 함께하는 세계 가곡 여행]

합창단과 성악가 협연
일시: 3월 31일 오후 7시
(3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무료 접수, www.ilec.go.kr)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미추홀
문의: ① 032-899-1511, 1516

11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하세요

아트센터 인천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성인 강좌]

- 화요일 미술, 여행이 되다: 파리 편
- 수요일 그리스 문화의 향연
- 목요일 클래식 라운지
- 금요일 인증서예살롱
강좌 기간: 10회(주 1회, 개강은 4월 5일부터 강좌별 상이)
수강료: 20만 원
신청 기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아트센터 인천 홈페이지(www.aci.or.kr)
문의: ① 032-453-7237

[어린이 강좌]

- 토요일 오전: 어린이 작곡 프로젝트 '꿈꾸는 음악가' 3기
- 토요일 오후: 어린이 뮤지컬 프로젝트 '꿈틀뭉틀'
강좌 기간: 12회(주 1회, 개강은 4월 5일부터 강좌별 상이)
수강료: 18만 원
신청 기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아트센터 인천 홈페이지(www.aci.or.kr)
문의: ① 032-453-7237

12 도서관과 함께하는 3월의 봄

[청라호수도서관]

비대면 - 상반기 정규강좌 및 독서회
유아·초등·성인을 위한 정규강좌 및 독서회
기간: 3월 15일~6월 14일
수강 신청: 2월 15일부터
문의: ① 032-563-8125
비대면 - 초등 역사 특강: 온라인 궁궐 나들이
궁궐 곳곳에 숨겨진 왕과 왕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눈높이에 맞춰 설명
일시: 3월 17일 오후 4~6시
대상: 초등학생 4~6학년 20명
문의: ① 032-563-8044
비대면 - 재능 기부 특강: 영어 튜터링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자원봉사자의 수준별 영어 교재를
활용한 실생활 회화 및 쓰기 교육
기간: 3월 4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정오
대상: 초등학생 30명
문의: ① 032-563-8044

[청라국제도서관]

비대면 - 상반기 정규강좌 및 독서회
유아·어르신 대상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강의
기간: 3월 2일~5월 26일
대상: 강좌별 상이
문의: ① 032-562-1674

비대면 - 재능 기부: 그림동화 영어 스토리텔링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자원봉사자의 그림동화를 통한
영어 교육
기간: 3월 12일~26일 오전 10~11시
대상: 7~9세 20명
문의: ① 032-562-1878
비대면 - 새봄맞이 글쓰기 기술 코칭
글을 잘 쓴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글을 써본 후
글의 완성도를 높임
일시: 3월 15일 오전 10시~정오
대상: 성인 20명
문의: ① 032-562-1878

[영종하늘도서관]

비대면 - 상반기 정규강좌 및 독서회
유아·성인 대상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9개 강좌
기간: 3월 7일~6월 25일
대상: 강좌별 상이
문의: ① 032-746-9137

비대면 - 3월 문화 행사: 우르르 광광 뚱이다
전래 동화 <뚱벼락>을 각색한 가족 인형극
일시: 3월 12일 오후 1~2시
대상: 인천시민
문의: ① 032-746-9137

비대면 - 3월 문화 행사: 노래로 만나는 동화
동화를 동요로 불러보며 책과 가까워지기
기간: 3월 22일~29일 매주 화요일 오후 3~4시
대상: 유아 20명
문의: ① 032-746-9139

[마전도서관]

비대면 - 상반기 정규강좌 및 독서회
유아·어린이·성인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기간: 3월 2일~6월 8일
대상: 강좌별 상이
문의: ① 032-590-2831
비대면 - 부모 교육: 사춘기 자존감 수업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및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공략법
기간: 3월 17일~31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대상: 성인 30명
문의: ① 032-590-2833



‘우회고가교’ 철거,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가 구축됩니다

- 상상플랫폼, 인천역, 차이나타운과 연계된 보행자 중심 체계 구축
- 우회고가교 좌우로 단절된 생활권 연결 및 인천내항 접근성 향상
- 인천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우회고가 정비사업 위치도

우리 시는 건설된 지 30년 된 ‘우회고가교’를 올해 상반기 부터 2023년 6월까지 철거하고 새롭게 왕복 6차로 평면 도로로 정비할 예정이다.

우회고가교는 1993년 중구 북성동에서 동구 만석동을 잇는 고가 차도로 설치되어 항구와 공장을 잇는 산업도로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우회고가교 주변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우회고가교가 철거되면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해 원도심의 기능 회복이 기대된다.

다만, 약 17개월 동안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공사 기간 내 우회고가교를 이용하던 차량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 시는 공사 중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우회고가교 하부에 임시도로를 설치할 방

침이다. 그러나 도로의 폭이 줄어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도심 내 통행 제한을 받지 않는 승용차와 4.5t 미만 화물차는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송현사거리에서 인천역을 거쳐 수인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화수사거리에서 만석고가교를 거쳐 제물량로로 우회하면 된다. 또 송현사거리에서 동인천역 북광장, 배다리사거리, 유동삼거리를 거쳐 수인사거리까지 송현로, 참외전로, 서해로로 우회해도 된다.

사업 기간 : 2022년 1월~2023년 6월

위치 : 중구 북성동-동구 만석동

연장 거리 : 1.69km, 왕복 6차로

노선명 : 인종로(광로3-2호선)



우회고가교 안내 영상 보기

문의: ① 시 재생콘텐츠과 032-458-7317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222

2023년, 이렇게 바뀝니다!

사업 전



우회고가 사거리 구간

사업 후



우회고가 사거리 구간 시뮬레이션

진달래로 피어난 조선군인의 땀을 만나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1871년 6월 11일 강화도 광성보(廣城堡)(사적 제227호) 앞바다가 검붉게 물들었다. 거대한 괴물 같은 미 함대로부터 나라를 지키려 목숨 걸고 싸운 조선군 수백 명이 흘린 피였다. 151년 전, 광성보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1871년 4월 최첨단 무기와 1,230여 정예 병력으로 무장한 미국 로저스(John Rodgers) 함대는 통상을 명분 삼아 조선에 개항을 강요해 온다. 그러나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자 초지진, 덕진진을 차례로 점령한 뒤 조선 최후의 보루인 광성보에 이르러 백병전을 전개한다.

광성보엔 그러나 조선의 명장 어재연(1823~1871) 장군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진무중군(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바다를 지키던 진무영(鎭撫營)의 정3품 관직) 어재연은 600여 조선군을 이끌고 격렬하게 전투에 임했으나 결과는 처참했다. 최싹식 무기라고 해 화승총 몇 자루가 전부였던 조선군이 최신에 함포를 쏟아붓는 미군을 대적하기란 중과부적이었던 것이다.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가 10명인 반면, 조선군은 전사자만 350명, 부상자는 20명에 이르렀다. 어재연 장군은 제대로 된 현대식 총 한 자루 없는 상황에서 동생 어재순과 함께 600여 조선군의 선두에 서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다 장렬히 전사한다.

조선의 피해가 막심했으나 미국이 승리한 건 아니었다. 함포 몇 발에 즉각 개항한 중국,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근 것이다. 미 함대는 조선군의 상징인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帥字旗)만 전리품으로 탈취한 채 제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미전쟁(신미양요, 1871)에 참전했던 슬라이(Winfield Scott Schley) 해군소령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원정대가 출항하기 전 나돌던 무수한 소문들과는 달리 조선군은 근대적인 총을 한 자루도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승총(jingalls) 같은 몹시 노후한 병기로 근대적인 무기에 훌륭히 맞섰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장렬하게 싸웠다. 영웅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진지를 사수하다가 전사했다. 어떤 나라의 장병도 고국을 위해 이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을 것이다”(〈회고록〉 95쪽). 미군들은 당시 조선군의 기개를 높이 평가해 어재연 장군을 비롯한 장교들을 정중히 매장해 주었다고 전한다.

강화군 불은면 광성보는 엄하(강화해협)를 지키는 강화12진보 가운데 하나의 요새다. 광성보의 정문인 안회루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신미순의총, 용두돈대, 쌍충비각, 손돌목돈대 등을 만난다. 신미순의총은 이름도 성도 남기지 못한 채 전사한 조선군 51인의 시신을 합장한 곳이며, 용두돈대는 암반 위에 설치한 천연 요새로 용의 머리를 닮아 붙은 이름이다. 어재연·재순 장군 형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비석 쌍충비각도 눈에 들어온다. 용두돈대에서 김포 방향으로 보이는 작은 무덤은 고려 고종임금 당시 뱃사공 손돌의 묘로, 무덤이 보이는 지점을 손돌목돈대라 부른다. 갑옷 입고 큰 칼을 찬 어재연 장군을 닮아 보이는 광성보의 아치형 정문 안회루를 지나자 카키빛 바다와 새싹이 움트는 산책로가 펼쳐진다. 봄 햇살을 닮은 사람들의 얼굴과 울긋불긋한 봄 꽃나무들. 풍전등화의 조국을 지키려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얼은 광성보 앞바다의 윤슬로 반짝이는데….

인천 지명

붉은 땅, 동암

많은 사람이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동암역(洞岩驛)의 ‘동’을 ‘동녘 동(東)’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리 동(銅)’을 쓴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향토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주변 땅이 구리 같은 광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동암역 주변의 남동구 간석동 신명여고 주변에 ‘쇠를 파낸다’는 뜻을 가진 ‘쇠판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다. 광물질이 많이 묻혀 있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근거로는 동암역에서 멀지 않은 인천시청 옆에도 예전에 불그스름한 땅 때문에 ‘붉은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동암역 인근 만월산, 과거 주안산(朱鰲山)으로



동암역 2년 출구

불리던 곳 역시 ‘붉은 산’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니 충분히 근거가 되고도 남는다. 주안산은 구리를 비롯한 광물이 많아 일제강점기부터 탄광이 운영되기도 했다. 더불어 이 산줄기와 연결된 광학산 일대에서도 구리를 비롯해 금, 은, 아연, 철 등 여러 광물을 캐내곤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동암역 일대의 상황도 비슷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동암역에 ‘바위 암(巖)’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주안산 아래 주변이 암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 근처에는 한동안 채석장이 운영되기도 했다.



2001. 03. 29
인천국제공항 개항(21개국 48개 항공사 취항)

인천 소사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를 메워 만든 해상 공항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01년 3월 29일 개항과 동시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의 당시 국제선 노선을 일괄 이관받았으며, 인구 밀집 주거 지역과 떨어져 있어 내륙 공항인 김포국제공항과 달리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항되는 국제선의 77%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담당한다.

인천국제공항은 1999년 2월 1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IIAC)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델타항공, 폴라에어 카고, 타이항공 등이 허브 공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때, 3월의 인천은...

1378. 03. 01	왜적, 부평 침공
1884. 03. 01	인천영국영사관 개설
1898. 03. 20	백범 김구, 인천감옥 탈옥
1903. 03. 01	인천항 대시라양행(大是羅洋行) 한인 이민자 82명, 하와이로 출발
1905. 03. 06	멕시코 이민자 1,033명, 인천항 출발
1919. 03. 08	인천 전역 독립선언서 배포
1919. 03. 14	인천공립보통학교 학부형 80여 명, 인천경찰서에서 만세 시위 학생 25명 석방 요구
1973. 03. 12	월미도, 중구에 편입
1979. 03. 05	한일방직 본사, 인천 이전
1979. 03. 10	길병원 개원
1993. 03. 01	인천 시내버스, 토큰 사용
1993. 03. 10	인천시의회, 미국 앵커리지 시의회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
2010. 03. 03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개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아암도 단상

사연 송병관(연수구 센트럴로)

아암도가 가까이 있어 늘 자주 찾곤 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 아암도를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지요. 보통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방문하지만 저는 집에서 5,000여 걸음만 걸으면 도착하는지라 도보로 갑니다. 아암도로 가는 길엔 해를 앞세우니 그림자가 뒤에 있고, 집으로 가는 길엔 해를 뒤세우니 그림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으며 튼튼한 두 다리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저의 단상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굿모닝인천> 독자들과 저의 감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암도 가는 그림자

해 떠오르는 날에
산보를 갔다 오다 이 낮은 기다란 친구를 보았드랬소
등 뒤에서 햇살이 비춰내니
머리는 멀고 다리는 가까이라
항상 함께 다녀도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지만
아장아장 아암도로 걷는 건각으로 강녕함을 알겠소

그래, 점점 시간이 지나면
머리는 가까이 다가오고
마침내는 어느 시각 가장 짧은 그림자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바로 선 하루살이더라
어느 시각에 반대쪽 이처럼 그림자가 생길 것이겠지만
오늘의 살아 있음으로
제 그림자 가지고 사는 즐거움을 잊지 마시오

날로 날로 건승하심을 빕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 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예술전당’의 탄생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현 인천문화예술회관)이 1994년 4월 8일 개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 예술문화공간은 주안의 ‘인천시민회관’이었다. 1974년 건립한 객석 1,350석의 대강당을 포함해 2,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시민회관에선 오케스트라, 합창, 한국무용, 연극과 같은 예술 창작물이 무대를 달궜고 시상식, 경진대회 등도 열렸다. ‘인천일보’와 한국문인협회 인천시지부가 1993년 주최한 ‘인천도서 100년 전’ 행사 땀 수십만 명이 참관하며 전국적 인지도가 한껏 올라가기도 했다. 주요 공연·전시의 무대가 인천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하면서 시민회관 시대는 2000년 막을 내린다. 그 자리에 ‘틈 문화창작지대’가 동지를 틀었고, 건물 앞 광장은 정자나무 그늘과 분수가 솟아나는 쉼터로 시민들을 맞는 중이다.

개항 이후 인천의 첫 공공 예술문화공간은 ‘인천공회당’(1923)이다. 지금의 인성여고 체육관 자리에 있던 공회당은 붉은 벽돌 2층 건물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로선 꽤 큰 극장이었다. 1920, 1930년대 공회당에선 현제명 초청 독창회, 제물포 하모니카 밴드 연주회, 인천고려체육회 주최 음악 무도회, 인천소년연합회의 어린이날 축하 동화회 같은 공연·행사가 펼쳐졌다. 한국전쟁 때 포격을 받아 무너졌던 공회당이 미군들의 복구공사를 거쳐 1,220석의 객석을 갖춘 ‘인천제1시민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한 때는 1957년이다. 이후 영화를 주로 상영했는데 간간이 ‘서영춘·백금녀의 폭소가요 코미디 쇼’나 국경일 기념식 같은 행사가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1966년 6월 1일엔 인천시립교향악단 창단기념 연주곡 ‘인천시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문화적 갈증은 문화원과 공보관, 그리고 다방이 채워주었다. 중구 중앙동 4가 경기도병사부사령부(경기병무청) 건물 1층에 있던 ‘인천문화원’(혹은 한미문화원)에선 김찬삼 씨가 세계여행기를 강연했으며, 사동에 자리한 ‘공보관’(현 월디어린이집)에선 백일장 시상식, 시화전, 우표전시회 같은 이벤트가 진행됐다. 부평깡시장 안엔 제2공보관인 ‘북구공보관’이 있었는데 공연과 강연은 물론 농산물전시회, 결혼식까지 치른 부평 지역의 종합문화예술 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었다. 북구공보관 자리였던 부평구 시장로 61번길엔 2004년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 다방은 1970, 1980년대 가난한 작가들의 아지트이자 갤러리였다. 다방에선 빵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입에 문 사람들이 인생의 덧없음과 예술의 영원성을 논하며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음악 다방, 여성 전용 다방, 심야 다방, 화랑 다방 등 형태도 다채로웠다. 중구 신포동 ‘은성다방’은 그 시절 기자이면서 문인, 화가, 사진가들이 즐겨 모이던 대표적 화랑 다방이었다. 1969년 은성다방에선 박웅창, 윤갑로, 김영건, 우문국, 이경성 등 50대 미술인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오소회(五素會)’ 창립전이 개최된 이래 동정 박세림, 검여 유희강과 같은 인천 미술거장들의 전시회가 자주 열렸다.

인천공회당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진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2024년이면 인천시민들은 좋은 음향과 세련된 무대시설, 편안한 객석을 갖춘 공간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아트센터, 부평아트센터와 함께 인천이 자랑하는 ‘예술전당의 탄생’을 기다린다.



봄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뽕뽕 얼었던 살얼음
스르르 녹아 시냇물로 흐르고

산에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 툭 툭 피어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명산 고려산에도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서둘러 봄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진달래의 바다를 건너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봄바람을 맞는 사람들의 얼굴에
울긋불긋한 산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에도
봄은 이미 깃들었습니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